

2020년 4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렘데시비르 임상 실패 소식으로 상승분 반납 국제유가 상승 지속은 전반적인 투자심리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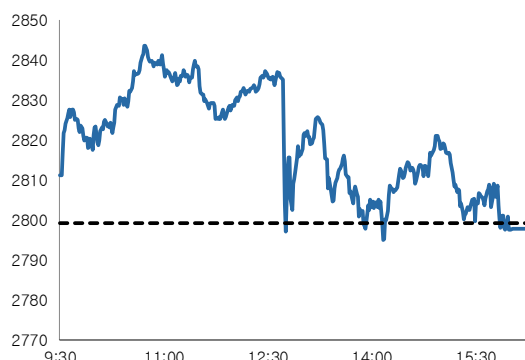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국제유가, 코로나 치료제

미 증시는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의 감산 기대 속 30% 넘게 급등하자 상승 출발. 그러나 오후 들어 변동성이 커졌는데 중국에서 진행된 길리어드 사이언스 렘데시비르 임상 실패 소식에 기인. 더불어 EU 정상회담에서 구제 패키지 논의 실패 소식도 부정적. 다만, 길리어드가 임상과 관련 반박을 하자 재차 반등하는 등 변화를 보이다 결국 혼조 마감(다우 +0.17%, 나스닥 -0.01%, S&P500 -0.05%, 러셀 2000 +1.04%)

국제유가가 장중 한 때 33%나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임. 기술적인 반등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한 이란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 미국과 OPEC 의 감산 기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특히 기업들이 계약상 유정 폐쇄를 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관련 불이익을 오클라호마주가 부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미국의 감산 기대를 높였고,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이미 감산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공급 감소 기대를 높인 점이 국제유가 급등 요인. 다만, 여전히 쿠싱 지역 재고가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어 6 월물 WTI 도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공급도 문제지만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

한편, 길리어드 사이언스(-4.34%)의 렘데시비르 임상 관련 논란이 유입되며 미 증시는 상승분을 반납. 중국에서 진행 되었던 렘데시비르 임상 관련 요약 보고서가 실수로 WHO 에 게시 되었다가 삭제.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을 진행 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는 투약을 중단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음. WHO 는 원고를 검토 중이며 최종 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표. 길리어드는 이에 대해 중국에서의 임상은 표본을 구하지 못해 조기 종료 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주장. 더 나아가 보고서에서 보면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나 데이터의 추세를 감안 초기 투약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효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발표. 이러한 길리어드의 반박이 이어지자 미 증시는 재차 상승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이다 혼조 마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98	1,914.73	홍콩	23,977.32	+0.35		
KOSDAQ	+1.36	643.79	영국	5,826.61	+0.97		
DOW	+0.17	23,515.26	독일	10,513.79	+0.95		
NASDAQ	-0.01	8,494.75	프랑스	4,451.00	+0.89		
S&P 500	-0.05	2,797.80	스페인	6,746.50	+0.40		
상하이종합	-0.19	2,838.50	그리스	610.48	+2.53		
일본	+1.52	19,429.44	이탈리아	17,011.11	+1.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인텔 시간 외로 5%대 하락

길리어드사이언스(-4.34%)는 실적 개선 기대속 상승하기도 했으나 중국에서의 임상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급격하게 매물 출회되며 한 때 8%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바이오젠(-1.93%)은 씨티그룹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자 약세를 보였다. 타겟(-2.79%)은 동일 매장 매출이 3월에 급등한 이후 4월에는 둔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월마트(-2.33%), 코스트코(-1.30%) 등도 동반 하락했다. 전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램 리서치(-2.88%), 자일링스(-3.83%)도 하락했고 이로 인해 AMAT(-2.32%)도 동반 하락했다..

철도운송 회사인 CSX(+1.00%)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엑손모빌(+3.13%), 세브론(+2.79%), 코노코필립스(+3.43%) 등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1.76%)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던스 제공을 취소하자 시간 외로 5% 넘게 하락 중이다 이 여파로 마이크론(-0.32%) 등 여타 반도체 관련주도 동반 약세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93%	대형 가치주 ETF(IVE)	+0.07%
에너지섹터 ETF(OIH)	+9.70%	중형 가치주 ETF(IWS)	+0.47%
소매업체 ETF(XRT)	+0.84%	소형 가치주 ETF(IWN)	+1.11%
금융섹터 ETF(XLF)	-0.42%	대형 성장주 ETF(VUG)	-0.17%
기술섹터 ETF(XLK)	-0.69%	중형 성장주 ETF(IWP)	+0.1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18%	소형 성장주 ETF(IWO)	+1.10%
인터넷업체 ETF(FDN)	-0.11%	배당주 ETF(DVY)	-0.29%
리츠업체 ETF(XLRE)	-1.1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21%
주택건설업체 ETF(XHB)	+1.1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4%
바이오섹터 ETF(IBB)	-0.31%	미국 국채 ETF(IEF)	+0.07%
헬스케어 ETF(XLV)	+0.55%	하이일드 ETF(JNK)	-0.18%
곡물 ETF(DBA)	+0.97%	물가연동채 ETF(TIP)	-0.06%
반도체 ETF(SMH)	-0.92%	Long/short ETF(BTAL)	-1.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3.96	+3.01%	+12.04%	+19.97%
소재	308.69	+0.54%	+1.58%	+11.96%
산업재	516.24	+0.77%	+1.32%	+5.53%
경기소비재	909.04	+0.32%	+0.39%	+15.95%
필수소비재	595.61	-1.02%	-2.82%	+13.60%
헬스케어	1,151.83	+0.48%	+0.15%	+21.38%
금융	355.96	-0.43%	+0.84%	+4.76%
IT	1,526.34	-0.69%	-1.51%	+11.96%
커뮤니케이션	162.91	+0.71%	+0.32%	+13.56%
유틸리티	294.42	-1.76%	-1.19%	+13.31%
부동산	204.49	-1.19%	-1.55%	+13.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업종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0.24%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36%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1.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진행된 렘데시비르 임상 시험 결과가 WHO 에 잠시 게시되었다가 삭제 되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며 임상 실패를 시사했다. 이 결과 미 증시는 변동성을 키웠다. 물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에 대해 반박을 했으나 이러한 임상 논란은 경제 섯다운 완화 시기 지연 가능성을 야기 시킨 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부정적이다. 한편, 뉴욕주 주지사가 지난 19 일 진행되었던 3 천명의 주민 대상 항체 검사 실시 결과 13.9%가 양성을 기록했으며, 이를 감안 모르는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발표된 27 만명 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 공포 심리를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여기에, 미 증시 마감 후 인텔이 실적을 발표 했는데 예상보다 양호했으나 시간 외로 6% 넘게 약세를 보이며 마이크론을 비롯한 여타 반도체 업종의 시간 외 부진을 야기시켰던 점도 부담이다. 물론 국제유가가 미국과 OPEC 국가들의 감산 가능성이 부각되며 급등 하는 등 원유시장 안정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채굴권 계약상 유정 폐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오클라호마주에서 이를 허용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내 감산 기조가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매물 출회가 예상된 가운데 지수 보다는 종목과 업종에 주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 불안 지속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 주(523.7 만건) 보다 완화된 442.7 만건을 기록했으나 예상(425 만 건)을 상회했다. 한편 최근 지속적으로 신규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미 5 주 동안 2,600 만 건을 기록해 금융위기 이후 늘어났던 고용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3 월 미국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74.1 만건)이나 예상(64.3 만 건)을 하회한 62.7 만건을 기록했다. 한편 재고는 전월(5.2 개월) 보다 증가한 6.4 개월을 기록했다.

4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49.2)나 예상(40.0)을 하회한 36.9 를 기록했고 서비스업 PMI 도 전월(39.1)이나 예상(35.0)을 하회한 27.0 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20% 급등

국제유가는 미국과 OPEC 의 공급 감소 기대가 높아지자 급등했다. 원유생산 기업들의 채굴권에는 유정을 폐쇄하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시추업체들이 유정 폐쇄를 서두르지 않았으나,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긴급명령을 통해 유정 폐쇄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감산 기대를 높인다는 점이 원유시장에 도움이 되었다. 여기에 쿠웨이트 석유장관이 이미 OPEC 이 5 월 1 일부터 시행하는 감산을 이행 중이라고 주장한 점, 이란이 자국 배를 위협하는 미국 군함을 공격할 것이라고 발표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더 확산 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었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나 유로화에는 강세를 보이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유로화는 EU 정상회담에서 구제 패키지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달러 대비 약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러시아 루블화, 노르웨이 크로네는 달러 대비 1~2% 강세를 보였으나 브라질 헤알화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으나, 예견된 부진이라는 점을 감안 하락폭은 제한 되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원유시장이 안정을 찾은 것 또한 하락 제한 요인이었다. 이에 힘입어 단기물의 경우 상승하는 등 결국 혼조 마감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 하기도 하다 혼조 마감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6.50	+19.74	-35.37	Dollar Index	100.584	+0.20	+0.56
브렌트유	21.33	+4.71	-23.33	EUR/USD	1.0777	-0.43	-0.58
금	1,745.40	+0.41	+0.79	USD/JPY	107.62	-0.12	-0.28
은	15.526	+0.15	-1.52	GBP/USD	1.2345	+0.09	-0.90
알루미늄	1,510.00	-0.33	-0.17	USD/CHF	0.9762	+0.50	+0.61
전기동	5,160.50	+0.57	+0.40	AUD/USD	0.6371	+0.76	+0.70
아연	1,872.50	-1.21	-3.38	USD/CAD	1.4075	-0.61	-0.05
옥수수	326.00	+0.38	-0.08	USD/BRL	5.525	+1.24	+5.45
밀	544.75	+0.18	+2.69	USD/CNH	7.0952	-0.08	+0.10
대두	846.75	+0.50	+0.12	USD/KRW	1229.70	-0.20	+0.08
커피	112.40	+0.31	-6.10	USD/KRW NDF1M	1231.19	-0.10	+0.2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05	-1.44	-2.21	스페인	1.045	-8.70	+21.80
한국	1.548	+0.80	+12.80	포르투갈	1.186	-8.40	+23.00
일본	0.008	+0.60	-0.90	그리스	2.327	-19.60	+22.30
독일	-0.424	-1.70	+5.00	이탈리아	1.983	-9.30	+15.30